

'BS한양 그랑레브' 통합심의 진행...사업 추진 탄력

조합원 분양분 제외 잔여 50여 세대 공급

이주 세대 대상 석면 해체·제거 작업 본격화

권도 타월하기 때 문에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고 추가분양의 조기마감을 자신했다.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조합장. 김왕겸)은 사업승인과함께 조합원들의 숙원인 아파트사업이 하반기 시작된다.

조합 측은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광주 서구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이 시공 예정사인 BS한양과 함께 추진 중인 'BS한양그랑레브' 아파트 사업이 통합심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합은 분양 대상 토지의 권원을 95.2% 확보한 데 이어 지난 4월 서구청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 사업의 주요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해 왔다.

현재는 최종 관문인 광주시 통합 심의를 받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사업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합은 그동안 토지 소유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아파트와 상가 건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잔여 세대 추가 모집에 나섰다.

이번 추가 모집 물량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약 50여 세대로, 전용면적 84㎡ A·B형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광주 서구 마북동 174-8번지에 마련됐으며, 조합은 이주를 완료한 세대를 중심으로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사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주가

완료되는 세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왕겸 조합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까지 받은 만큼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동시장과 중심상권에 인접해 있고 광주천을 비롯한 자연친화적 환경과 우수한 조광권을 갖춘 입지 경쟁력이 강점"이라며 조기 분양 마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합은 일부 보완 요구가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심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 승인과 함께 조합원들의 숙원 사업인 아파트 건설이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현재 현장에서는 이주 및 철거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공사 일정에 맞춰 후속 작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법적 절차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투명한 사업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BS한양그랑레브는 양동시장과 광주천 인근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주거 편의성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합은 통합심의를 통과할 경우 지역 내 새로운 주거 랜드마크 조성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영 기자



양동 그랑레브 65A·B/84A·B | 총 619세대 | **84A·B 마지막 50세대** **062)412-1700**

'BS한양 그랑레브' 양동현대조합 아파트 사진

광주서구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조합장. 김왕겸)이 한양건설과 함께 'BS한양그랑레브' 아파트 통합심의가 들어갔다.

조합측은 분양토지의 토지권원 95.2%를 확보하고 지난달 4월 중순 서구청으로부터 조합원추가모집 승인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광주시의 심의를 받고 있다.

조합은 그동안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작업을 벌여온 결과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추가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모집에는 조합원 분양세대를 제외한 50여 잔여세대로 조합측은 신청 순서대로 분양을 마감한다. 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84㎡ A·B타

입2가이다.

조합은 광주서구 마북동 174-8번지에 모델하우스를 마련했고 조합측은 지난 4월초부터 이주를 한 아파트세대부터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진행중이다.

조합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주를 하는 조합원들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사를 계속한다.

김왕겸조합장은 "조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고 서구청의 조합원추가모집승인도 받아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한다"면서 "신축할 아파트의 경우 양동시장을 포함한 중심상권에 위치한다. 광주천을 비롯한 주변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어 조망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랑지의 봄

연둔리숲정이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구봉암의 겨울